

기고

119구급차, 꼭 필요한 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119.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자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오·남용으로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우리 진도소방서에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자제해야

단순 감기, 만성질환 관리, 정기 병원 이송 등 생명이 지장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구급차가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응급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하는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최근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병원 선정에 대한 구급대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합니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비응급 시에는 119 상황실에서 상담 가능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의료 상담·약국안내·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도소방서 소방서장 김재출

강성훈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훈 철학티비', '강성훈 문학티비' 운영중



자녀 잃은 슬픔-다윗과 클렘튼

반역의 과수가 사라졌다고 기뻐했을까? 이제 강력한 정적(政敵)이 제거되었다고 축배를 들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은 반역자이기 이전에 아들이었다.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이 반역 군대를 도발하며 떠날 때에도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부탁을 해놓았던 터. 다윗은 이렇게 통곡을 한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

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삼하18:33)

영국의 세계적인 가수 에릭 클렘튼은 1981년 'Another Ticket'라는 앨범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히트곡을 내지 못한 채 긴 슬럼프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아들 코너(1986년생)가 영상으로 보낸 노래를 접한 후, 이제는 술과 마약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작업이 막막은 대로 되어가지 않자 또 다시 술과 마약에 손을 댔고, 아내는 아들 코너를 데리고 떠나버렸다. 이에 클렘튼은 스스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찾아갔다.

마침내 중독을 벗어나게 된 그는 1991년 3월, 뉴욕 맨해튼에서 아들과 해후하게 된다. 클렘튼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하고 코너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던 클렘튼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아빠가 오길 기다리던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것. 이 사건은 엄청난 죄책감으로 아버지를 덮쳤다. 클렘튼은 사고 직전 아들이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는 '사랑해요.'라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2년 클렘튼은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맘먹고, 노래를 만들었다. 바로 이 노래의 제목이 'Tears in Heaven(천국의 눈물)'이었다. 클렘튼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을, 이 노래 안에 담았다. 이 곡이 실린 앨범은 1992년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는 것은 물론, 2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그를 최고의 가수 반열에 올려놓았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과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작은 불씨가 곧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과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부산의 노후 아파트와 대구의 다세대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노후 건물에서 나타나는 스프링클러의 부재였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어 해당 층

소방시설로 피난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물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과 검은 연기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건물 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게 하여 극도의 긴장과 패닉을 일으킨다. 이때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피난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대피가 어렵다면 우리는 화마로부터 생

존할 수 있을까?

현행 소방법상 노후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을 정상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하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건물 관계자의 협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

상제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밀집시설이 해당된다.

안전은 결코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의 준비와 협조가 함께할 때 일상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서장 박춘천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음력 9월 7일)
48년생: 어렵지 않은 쉬운 방법을 찾아내자. 60년생: 잘한다. 소문이 발 없이 퍼져간다. 72년생: 어려서 아는 내용 비워야 채워진다. 84년생: 손짓하는 유혹도 모른 척 해야 한다. 81년생: 연습만은 이제 그만. 실전에 강해지자.
49년생: 노래할 거처럼 사랑이 다시 온다. 61년생: 공한 쪽 누는 이웃이 되어보자. 73년생: 불확실한 미래 지우고 다시 쓰자. 85년생: 짐작이나 예측 백점을 받아보자. 97년생: 힘이 절로 실리는 응원들 들어보자.
50년생: 혼자는 심심하다. 여럿이 함께 하자. 62년생: 고매운 도움을 허리 숙여 받아보자. 74년생: 행복하고 싶은 자유를 가져보자. 86년생: 허영된 이야기다. 민잔이 들어온다. 98년생: 빈약한 조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자.
51년생: 생각 못한 궁합이 재미를 더해준다. 63년생: 비싼 값 받으려는 욕심을 가져보자. 75년생: 도야니면 모 습부는 거칠게 하자. 87년생: 조직의 중심 입지가 단단해진다. 99년생: 필요했던 조건 깨우침을 가져보자.
52년생: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오고간다. 64년생: 가르치는 수고 열심히 해야 한다. 76년생: 마음 있는 친구와의 기특함 해보자. 88년생: 성실하다 이전에 반성이 우선이다. 100년생: 문물이 그렇듯 감동이 밀려온다.
53년생: 쉽게 하는 허락 마음으로 남겨준다. 65년생: 이차하는 방심주의 담지 못한다. 77년생: 출타하던 거래 동상이 적혀진다. 89년생: 슬픔이 지나니 희망이 다시 온다. 01년생: 진짜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
54년생: 불안했던 시간과 인형할 수 있다. 66년생: 치열한 경쟁에서 손이 들려진다. 78년생: 빠지 않는 솔직한 정수로 매겨진다. 90년생: 어딘가로 사라진 초심을 찾아보자. 02년생: 우연한 실수 전회위복이 되어준다.
55년생: 뜨거운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가자. 67년생: 입만 이론 자랑 초라해 보여진다. 79년생: 모두가 외면해도 한 길로 가야 한다. 91년생: 분명하고 영리한 답을 내어보자. 03년생: 잊고 쓰는 공부 기초부터 다시 하자.
56년생: 근엄함을 빼고 신나게 놀아보자. 68년생: 발차림 반박이는 제안을 들어보자. 80년생: 여전히 타격대적 반대와 맞서보자. 92년생: 급하지 마라. 믿음으로 지켜내자. 04년생: 새로운 동기 부여 각오를 다시 하자.
57년생: 좋아진 세상에 합류를 서두르자. 69년생: 자꾸 웃음이 나는 경사를 밟아 한다. 81년생: 주고받는 거래 경으로 해야 한다. 93년생: 스쳐가는 만남, 운명임을 알아내자. 05년생: 조금씩 지켜가도 포기하는 금물이다.
58년생: 공갈은 행복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70년생: 애정 표현 부드럽고 강해야 한다. 82년생: 안전하다 싶은 차선을 가져오자. 94년생: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가 남겨진다. 06년생: 기일이 할기로 온 날들이 해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부/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500 경부고속도로 50주년